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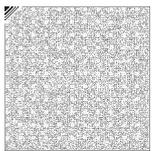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93호

2022년 5월 8일(다해)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 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3,14.43-52

화답 송 | 시편 100(99),1-2.3.5(◎ 3c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 묵시 7,9.14L-17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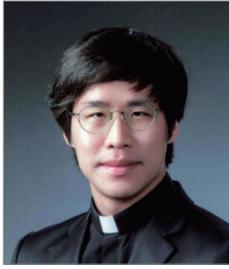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27-3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양우준 레오 신부 | 성소국 차장

| 우리 모두의 착한 목자이신 주님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 떼’라고 하면, 양들이 싱싱하게 자라난 푸른 풀들을 한가로이 뜯고 있으며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는 목자가 있는 구도, 즉 목가적 풍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에는 비가 적게 내리는 광야에서 양 떼를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성소 주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긴장감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마실 물도, 푸른 풀도 별로 없고 이따금 강도마저 등장하는 열악한 상황을 연상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한 목자’를 떠난다는 것은 양 떼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착한 목자를 떠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을 마주하게 되는가.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처럼 양 떼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착한 목자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십시오.’라는 지향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그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은 언제나 교회의 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청중 전체, 더 나아가 ‘그리스도 신앙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요. 따라서 초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인간적 한계를 공유하는 성직자 등의 ‘착한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언제나 우리의 눈길이 가 있어야 하겠지요.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착한 목자이시다.’라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 이야말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라는 것, 그분께서는 우리가 약해서 비틀거릴 때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 주시며,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 나서시며, 그 무엇도 당신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요한 10,28 참조) 구원하러 오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한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요청되는 사실이지요.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먼저 자신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착한 양’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스승’이요 ‘착한 목자’로 모시고 늘 그분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소 주일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부르심’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의식하며 살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초대는 결코 한정되어본 적 없으며, 오늘을 걷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음을 간직하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0,28)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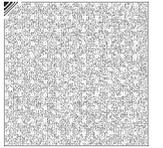
솔피성지 대성전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요한 10,28)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안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에 두 손을 모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부활의 기쁜 길을 걸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홍진호 제노 | 첼리스트

| 엄마의 기도 일기

그레고리안 찬트, 바흐의 칸타타, 어린이 성가대, 무반주 모테트를 비롯해 양희은, 이선희, 이상은, 조용필 등 어린 시절 집 스피커에서는 설 새 없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음악을 켜놓고 청소하시는 시간이 시부모님을 모시며 바깥일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했던 고단한 어머니의 일상에 몇 안 되는 나름의 힐링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직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어머니의 곁을 졸졸 쫓아다니며 옆에서 크레파스로 그림도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따위를 집으며 한시도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날도 역시 집안을 가득 채웠던 음악은 그저 생활의 일부일 만큼 익숙해져, 별다른 감흥 없이 가끔은 익숙해진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에 울려 퍼졌던 낯선 야수의 음악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첼로 연주였습니다. 방바닥을 통째로 흔들며 가슴속을 무언가로 박박 긁어대는 듯한 강렬한 소리는 고작 열한 살이었던 어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와 동시에 저런 소리를 내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 저 소리를 내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기게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며 첼로를 배우게 해달라고 난데없이 생떼를 부리는 철부지 아들에게 풍족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과 훌륭한 클래식 악기 연주자로 성장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고려해 부모님께서는 취미로 한다는 전제하에 마침내 첼로 수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악기를 손에 쥐고 활을 그었을 때 고스란히 가슴에

전달되던 첼로의 울림은 방바닥까지 흔들며 포효하던 야수의 울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첼로와 급속도로 사랑에 빠진 저는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제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첼로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마다 다른 방에서 묵주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는 종종 기도 제목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 일기에는 늘 남을 아끼고 배려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첼로에 욕심이 생기면서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빨리 성장해서 친구들의 악기 실력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욕심만 커지던 저를 보며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욕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차곡차곡 쌓여가는 어머니의 기도 일기처럼 저 또한 조금씩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이어지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오늘도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컷 묵상



그들은 나를 따르다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믿음
사랑
신앙
희망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6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 참된 그리스도인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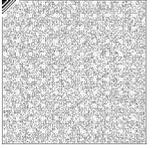
바로 사도는 코린토 1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서술한 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3,13) 하느님을 향한 덕행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신앙애, 향주덕 혹은 향주삼덕(向主三德)이라 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입니다.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희망함을 의미하고, 믿는 사람은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 2,26 참조)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약속된다고 가르치는데, 구원받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기에 구원을 위해서 신앙과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며(마르 16,16; 요한 3,5 참조),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14항) 또한 교회에 소속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톨릭교회는 가르칩니다.

가톨릭 신자는 매일 자기 가슴에 성호경, 즉 십자가를 긋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으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지니는 삶의 무게이자 각 개인에게 주

어진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향주삼덕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믿음이란 하느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희망이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을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은총입니다. 사랑이란 하느님 사랑에 머물며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은총입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이 희망이며, 하느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성경과 교회를 통해 계시해주신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복직관’(至福直觀, visio beatifica), 즉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과 세례와 교회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렵듯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하가르



허영엽 마리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가르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라는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집트 노예인 하가르를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내 후사를 잇게 하였습니다. 사라가 생각 하기에 하인들 중에서 뽑은 하가르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가르가 심성이 착하고 순종적이라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가르도 처음에는 주인 사라의 환대가 눈물 나게 고마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자신을 선택해 주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전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신분 상승을 하게 돼 하가르 본인도 얼떨떨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시간이 흐르자 하가르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가문에 아들을 낳아 주게 되면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사실 그동안 나는 너무도 당하면서 살았어.” 시간이 흐르면서 하가르의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불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가르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하여, 결국 총애 받던 여주인 사라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처음 하가르와 사라는 서로에게 아주 좋은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서로 나쁜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상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가르는 여주인 사라의 자리를 넘보며 금지된 경계선을 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결과는 뻔합니다. 갈등과 싸움만이 남습니다. 안하무인(眼下無人)한 하가르

의 태도는 곧 화를 불렀습니다. 멸시당한 사라는 아브라함과 담판을 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지만, 사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나는 당신 뜻을 따르겠소.” 하가르의 교만한 행동은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하가르는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자기 고향인 이집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사라에 대한 원망,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채로 광야를 헤매다 지쳐서 샘물 곁에 쓰러집니다. 그때 하가르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가르는 그제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가르는 자신의 자리가 여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라의 학대 때문이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방어적으로 생각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곳이 네가 있을 자리다.”라고 말해 그녀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들나귀와 같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자리가 있고 다른 이와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여 대상관계를 혼동할 때, 인간은 고통과 시련, 멸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올바른 자리에 늘 서 있습니까?(창세기 16장, 21장, 25장을 읽어보세요.)



비올레타 파라(1917~1967, 칠레) | 사진출처: 위키백과

음악칼럼

웃음과 눈물을 준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 (Gracias a la Vida)”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월드뮤직’은 이젠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지만, 우리 귀에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던 1990년대 음악 애호가와 산업 관계자들은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양 약간의 흥분과 함께 애정 어린 시선을 쏟아부었습니다. 월드뮤직이란 아시다시피 영미권, 서유럽권 주류 음악이 아닌, 세계 각 지역의 민속 음악에 기반한 다소 대중적인 음악을 말합니다. 당시 추세를 반영해 저도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월드뮤직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특집의 제목을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붙였었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데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노래, 저항의 노래들 영향이 컸죠. 그 노래들을 탄생시킨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삶이란 대체로 부패한 정권하에서 겪는 불평등과 가난, 군부 독재 치하에서 행해지는 자유와 권리의 박탈,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음악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노래’라는 무기를 들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 사회운동은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ón, 새로운 노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1960년대 칠레를 기점으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사회참여적인 노래의 장르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회 상황을 과거 우리나라도 겪었기 때문일까요? 이 노래들은 우리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누에바 칸시온의 많은 곡 중에 가장 사랑받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Gracias a la Vida)>일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는 저항적, 투쟁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인생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칠레 누에바 칸시온의 어머니’라 불리는 비

올레타 파라(Violeta Parra, 1917~1967, 칠레)가 1966년 자신의 마지막 음반에 수록했는데, 1971년 아르헨티나 민중의 희망이자 양심으로 지칭되는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 1935~2009, 아르헨티나)가 부름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습니다. 소사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 있으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인간애 넘치는 노래를 불러 민중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던 국민적 가수입니다. 그녀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얻을 만큼 노래로 민중을 대변했죠. 이 노래는 소사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가수는 물론이고 미국의 포크 가수 존 바에즈(Joan Baez)가 부르면서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빛나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하고 말하는 소리와 문자, 행진할 수 있는 다리... 그 많은 것을 내게 준 삶에 감사합니다. 웃음과 눈물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는 만들어졌고, 모든 이의 노래는 다 같은 노래이며 바로 나의 노래입니다...” **가사에서 보듯 노래에서는 기쁨만이 아니라 때때로 슬픔까지도 주는 우리네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감사가 넘치는 달입니다. 부모님께도, 스승님께도, 또 자녀, 부부끼리도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으로 내시고 영혼과 육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노래를 듣다 보면 저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작곡 및 노래: 비올레타 파라



노래: 메르세데스 소사



불러서 모인 거룩한 집 ‘안’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한때 학생들에게서 건축사 책에 그렇게도 많은 성당 건물이 실려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강력한 권력으로 견고한 건물을 수없이 지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도발적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사에서 오직 성당만이 내부 공간을, 더구나 초월적인 공간을 인간들에게 계속 완성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합니다. ‘ek(어디에서 나와 어디로)’와 ‘kaleō(부르다)’가 합쳐서 생긴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공적인 집회를 뜻했던 이 말을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석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이리로 오라고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이들의 공동체, 이것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입니다.

함께 있다 함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야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도 모여 함께 있을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성당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부름을 받아 모인 당신의 백성을 저 먼 곳이나 집 밖의 마당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당신의 집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람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집 ‘안’에 불러 모은 종교는 오직 그리스도교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교처럼 믿는 이들을 신전 ‘안’까지 불러들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전에는 내부 공간이랄 것이 없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탑인 지구라트는 담장을 몇 겹이나 두르고 높은 곳에 성소를 두어 신과 백성 사이를 격리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높은 곳에 지어진 신전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집인 성당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



산토 스테파노 로톤도 성당(468~483년)

가 앉은 것, 심지어는 제대의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은총이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가운데에 선 사람을 모두가 동글게 에워싸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란히 마주 보는 두 가지 형식으로 모입니다. 성당에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에워싸거나 마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평면을 각각 중심형, 장축형이라고 부르는데, 중심형 성당은 동방 비잔틴 교회에서 발전했고 장축형 성당은 중세 서유럽의 교회에서 발전했습니다.

성당은 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당에서는 벽으로 에워싸인 내부만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당신의 집 ‘안’에 우리를 불러들여 몸소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일찍이 이런 내부 공간을 거룩한 분의 빛으로 통합하는 성당을 지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원형 성당인 산토 스테파노 로톤도 성당(Santo Stefano Rotondo, 468~483년)을 보세요. 불러서 모인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거룩한 내부 공간의 진수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5월 8일)은 ‘부활 제4주일’로 ‘성소 주일’입니다
다 성소 계발과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소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 발표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함께하며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奉祝) 표어인 ‘다시 희망이 꽃 피는 일상으로’ 향하는 길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을 열고 일상 회복을 향해 힘차게 발돋움하는 때에 맞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의 날을 맞아 신앙과 형식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형제적 연대를 발견하는 발걸음에 불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를 보살피고 공동선을 지향하며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메시지 전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 참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1년 5월 9일 윤을수 라우렌시오 신부(64세)
- 1979년 5월 14일 이계선 레오 신부(61세)
- 2008년 5월 12일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85세)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교구장일력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5월14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76-8405

‘슬픔 속 희망찾기’ 유가족을 위한 5월 월례미사

때: 5월21일(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봉헌
 곳: 영성센터 경당 /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홍수원 개인전: 1전시실
 이준규 개인전: 2전시실
 유광상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11일(수)~16일(월)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모집과정: (온라인) 2022년 영성심리 아카데미(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 (대면) 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수료과정(기본과정) 상세안내 홈페이지 참조 /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청년부 울동찬양부 ‘마리나타’ 단원 모집

성가와 울동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청년부 울동 찬양부에서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또한, 5월27일(금) 청년미사에서 울동찬양을 함께할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문의: 02)762-5071,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날 분량 갖기) 미사

때, 곳: 1317차 미사 5월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의주 분당, 강계 분당 ‘유티브’로 실시간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티브’ 앱 실행→‘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 문의: 02)727-2420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5월10일 13시30분~16시30분 매일 두번째(화)
 곳: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참조

2022 빈민사목위원회와 공단기가 함께하는 ‘함께 꾸는 꿈(CUM) 희망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대상: 서울 거주 19~34세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한부모·조손가족 보호대상, 자립준비청년 등 / 교육과정: ‘공단기’ 공무원 전직렬 온라인 강의 지원
 신청기간: 4월18일~5월31일 / 문의: 02)777-7261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가습공당 교회사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8

가습공당 교회사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과 만나는 김홍주 신부의 한국 교회사 / 문의: 02)727-2048 때, 곳: 5월24일~6월14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총 4회), 영성센터 A303호 / 회비: 5만원
----------	---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대침묵 피정’

주제: 내 안에 나야, 이제는 웃어도 돼
 때: 5월20일~22일 / 피정 지도: 문종원 신부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5월12일(목) 오후 2시~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집전: 유동철 신부(등촌3동성당 부주임)
 문의: 02)727-2407, 2409

청년들을 위한 ‘하루나 성시간’ 초대

성체조배를 통해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다양한 성가와 청년들의 신앙고백으로 이어지는 ‘하루나 성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때: 매일 두번째·네번째(금) 19시30분
 곳: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희
 문의: 02)777-8249 대학교사목부

한국 천주교회사 기초과정 접수 안내

주제: 한국 천주교회사, 그날의 시간을 돌아보다
 강의: 이현수 신부(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장)
 때: 6월3일~7월1일 매주(금) 19시부터(주말 성지순례 1회 포함, 총 6회)
 회비: 1인 5만원 / 접수: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참조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무국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2일(월)~27일(금)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반	그레고리오성가(남·여)·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성모님 생애 묵상 피정

강의, 묵상, 미사 / 문의: 010-9620-4820 마리아학교
 때, 곳: 5월16일(월) 10시~13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수도원 하루 체험 피정 / 문의: 010-9816-0072
 때, 곳: 5월15일 10시~17시,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주최) 본원 /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서울 노들담 교육관 피정 및 대관

1일 피정: 5월17일, 5월28일, 6월4일
 성경통독 및 광아피정 가능 / 문의: 010-3590-6319 담당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7510-4820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3호

사제와 함께하는 도보순례(문경)

때: 매주(토) 8시~17시(18km) / 선착순 8명
 회비: 1만원(숙소 제공) / 다음카페: 문경 천주교 성지
 문의: 010-9944-0145 문경 진안리 성지

침묵 대월기도 영성수련

때: 2박3일 5월13일(금)~15일(일)·5월27일(금)~29일(일)·6월10일(금)~12일(일)·6월24일(금)~26일(일)
 곳: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주최) / 문의: 032)465-0835
 홈페이지: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효산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20일~23일·6월17일~20일·7월15일~18일·7월29일~8월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혼인재발견(르투바이) 주말 / 문의: 02)929-2141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을 위한 2박3일 일의 주말 프로그램. 배우자와의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때, 곳: 6월3일~5일, 성 앙베르 센터(서울)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전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5월14일 14시~18시, 구산성지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성경 완독	5월13일(금)~21일(토), 6월10일(금)~18일(토)
효소 단식	5월26일(목)~29일(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2차	5월20일(금)~28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3차	6월17일(금)~25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5월18일~20일, 5월23일~25일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5월28일~31일, 6월4일~7일, 6월12일~15일, 9월3일~6일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 CLC)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5월27일(금)~29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5월19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월~금)

젊은이 찬양의 광장(청년성령쇄신봉사회 루하)

매주 금요일 저녁,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기도회와 미사로 초대합니다 /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루하
 때: 매주(금) 19시30분
 곳: 천주교 성령쇄신봉사회관(관악구 조원동) 3층
 문의: 02)866-6345 / 인스타그램: @ruah.fiat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갇힌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때: 5월16일~18일, 5월22일~24일, 5월26일~28일, 5월30일~6월1일, 6월4일~6일, 6월13일~15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예수회 청년센터 젊은이 침묵 피정

내용: 침묵 피정 속 개인 기도와 개별 면담
 동반: 이혼관 신부(예수회), 청년 동반자들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 회비: 일반 6만원(학생 5만원)
 때, 곳: 6월4일(토)~5일(일) 1박2일, 천주교 예수회센터(마포구 신수동) / 인스타그램: @magis_kr
 접수: 마지스 청년센터 문의(구글 링크를 통한 신청)
 문의: 02)3276-7706(magis.kr@gmail.com)

교육

수제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초중고졸 검정고시·성인학력인정 초등중학 모집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반 / 한글·영어반 모집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6기·청년 13기 개강

때: 4월26일(화) 14시·4월27일(수) 19시·4월26일(화) 19시~청년반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2022년 춘계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영유아 교육분과 세미나

주제: 영유아 삶의 복음화 / 축사: 유경춘 주교
 때, 곳: 5월25일(수) 14시~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참석자분들께 기념품 증정합니다
 문의: 010-6209-6593 전중정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특강

주제: 가톨릭 사상사(교회의 대사회적 가르침-교황문헌을 중심으로) / 강사: 한홍순(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성 정하상 기념경당(B2) / 회비: 회차당 1만원(후원회원 30%할인)
 선착순 접수 /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5월13일	근현대 교황 이야기 '프란치스코'
5월20일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 1
5월27일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 2

미사반주자 교육(9강동지구오르간

교육연구소) / 문의: 010-3203-8183
 곳: 천호동성당 내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때, 곳: 초보자 화요일반 14시·금요일 오후반 14시·금요일 저녁반 20시, 삼동역 본회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문화영성학(석사학위과정) / 전공: 문화영성, 사목영성
 접수: 5월2일(월)~15일(일) / 면접: 5월27일(금) 예정
 곳: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반포)
 문의: 02)2258-7814(http://gcs.catholic.ac.kr)

'오르프'와 함께하는 씬,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 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5월24일~6월14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2022년 영적돌봄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 모집

때: 6월11일~7월9일 매주(토) 10시~16시50분 / 회비: 25만원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원목자 및 일반인
 교육방법: 실시간 화상 강의(1~4주차), 대면 강의(5주차, 변동 가능) / 모집기간: 5월30일까지
 접수: 홈페이지(http://hospice.catholic.ac.kr) 참조
 문의: 02)2258-7550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전형 원서접수: 5월9일(월)~19일(목)-전형일 6월4일(토) /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모집과정: 석사 / 모집전공: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회복지학 석사학위과정(4학기), 2급 자격증 취득, 1급 자격증 응시 자격 취득 /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의료사회복지학과(중독 포함), 노인복지학과(장기요양 포함), 정신건강복지학과(발달장애 포함)
 접수: 5월2일(월)~15일(일) / 면접: 5월27일(금) 예정
 곳: 성모병원 내 성의회관(서초구 반포대로 222)
 문의: 02)2258-7723(https://welfare.catholic.ac.kr)

모집

국악성이 한길합창단 정기단원 모집

오디션: 매주(금) 오후 7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이 중 자유곡 1곡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3733-6526

명동대성당 무지카시크라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9세~12세 가톨릭 신자 남아
 문의: 010-5514-3002 자모회장

시스띠나 남성합창단원 모집

문의: 010-9842-8818 지휘자 이호중 교수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문의: 010-6814-6010
카톡ID 친구추가: LogosChoir / 네이버 검색: 로고스합창단

미사

오순절평화의마미 5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5월12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살레시오와 꿈 후원회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5월9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205-3호)

파티마성모님 발현미사(팔로티회-천주교사도직회)

때, 곳: 5월13일 12시~16시, 자비의산(홍천군 남면 물구비길 160) / 문의: 010-6212-4450 장화기 신부
파티마성모님 첫번째 발현미사에 참석하셔서 은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간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 (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자아 및 관계 회복	5월17일~6월28일 매주(화) 10시~13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윙학파에서 보는 꿈과 내적치유	6월7일·6월14일·6월21일 (화) 14시30분~16시30분(3주) / 강사: 김영희(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윙학파분석가)
전문 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과달루페 집 이용 안내: 소모임, 개인 피정, 성체조배 -매주(목), 사별 가족 돌봄 / 문의: 010-3135-1417

성분도 은혜의 들

내용: 열린카페, 청년들을 위한 오픈 공간, 대관 이용시간: (월~금) 10시~17시·청년들 대상 (금) 18시~21시
강좌: '청년들을 위한 생명 지킴 안내서' 강의·나눔 첫째·셋째주(금) 모임 / 문의: 02)318-2425 올리 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증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상분 기증 신청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순교성지 내)은 오는 7월 '상분(像本)'을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막합니다 이에 가톨릭교회의 첫영성체, 착복식, 종신서원, 선종, 사제서품등을 기증하는 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3142-4504, 4505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명절·위령의날), 매일 1회 추모와 축복 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영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c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
개인상담	우울 및 대인관계 어려움, ADHD, 심리검사 등
교육	미술심리상담사과정-5월16일~6월27일 매주(월) 7회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행정직원 모집 / 문의: 02)2258-7972

대상: 세례받은 대졸자 이상, 컴퓨터활용 가능한 자
인원: 계약직 1명 / 서류(자유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5월25일까지 이메일(ahck2016@naver.com) 접수

구파발성당 미화원 모집(계약직) / 문의: 02)389-1501

대상: 천주교 신자로 성실하신 분 / 근무: 주 20시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3306,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29-16)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선교사 교육 운영 및 사무행정·회계(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근무기간: 6월~2023년 11월(18개월)
대상: 견진을 받은 교우로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5월22일(일)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3

신정3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2060-8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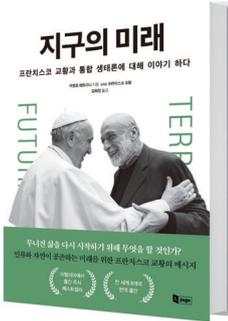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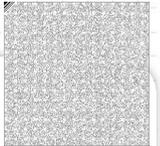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회계 업무·PC 가능한 분(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 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5월13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사당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분야: 방호원(계약직) 1명 / 문의: 02)587-229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신자로 신체건강하신 분(중 운전면허 자격증 필수) / 채용 희망일: 6월1일
업무: 성당 건물관리, 청소 등 제반사항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5월15일까지 서류 도착·방문·우편(우 07014,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3길9(사당동)) 및 이메일(sdcaatholic@naver.com)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후 면접)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월	수도원(서울)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심수녀회	5월21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채현주 수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14일(토) 14시~15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5월14일(토) 14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수시	수도원	010-6312-1986
예수 고난회	5월22일(일) 11시~15시	돈암동	010-6804-4904
예수회	수시	한국관구 성소실	010-6357-0731(vocation.jesuit.kr)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수시	본원	010-3944-1375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5월15일(일) 14시~17시	가톨릭회관 311호	010-9620-4820
한국외방선교회	6월5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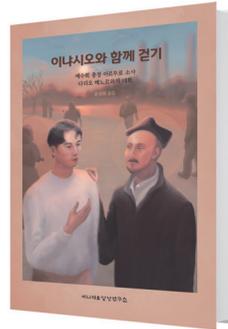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지구의 미래

카를로 페트리니 지음
앤페이지 | 240쪽 | 1만5천원
문의: 031)950-6300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인류는 삶이 바뀌는 결정적 변화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친근하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지구와 그 미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통합 생태론을 향한 또 다른 근본적인 움직임을 제시한다.



신간
이나시오와 함께 걷기

아르투로 소사 SJ · 다리오 메노르 지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278쪽 | 2만원
문의: 02)3276-7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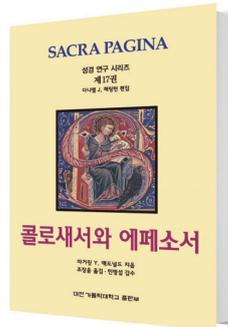
저자는 '이나시오의 해'를 맞아 그에 걸맞은 회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에 대해 다양한 주제들을 통하여 본인이 깊이 성찰한 것들을 나누어 준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은 회심 체험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살고 이 시대에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복음산책 7)

송보모 지음
바오로딸 | 368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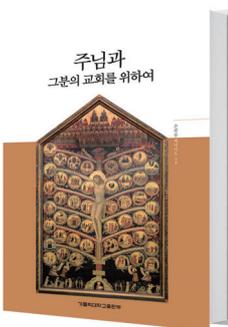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강해한 책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요한복음사가의 신학과 부활 신앙을 구약성경과 역사·문화·문학에 비추어 설명하기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요한복음을 렉시오 할 때 성경 구절 행간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간
성경 연구 시리즈 제17권
콜로새서와 에페소서

마거릿 Y. 맥도널드 지음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592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바오로의 서간들 가운데 콜로새서와 에페소서는 다른 서간에 비해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콜로새서와 에페소서가 어떻게 고대의 문학적 가치를 반영하며 공동체 생활의 특별한 국면에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좀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손희송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279쪽 | 1만5천원
문의: 02)740-9718

서울대교구 총대리이자 교의신학자 손희송 주교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곱 가지 주요한 물음에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알기 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사
『화답송과 시편의 노래』
(제2개정판) 출간 기념
노래로 함께하는 미사

일시·장소: 5월 14일(토) 오후 2시, 보문동성당
참석신청 및 문의: 010-7623-2941 (문자로 신청
바랍니다. ex:홍길동 참석)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장 박준주 신부가 『화답송과 시편의 노래』 <제2개정판> 발간을 기념하여 '노래로 거행하는 미사'(Missa in cantu)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미사 후에는 간단한 축하식과 북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4월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그대로 유지!
- 성당 전체 개방 : 매일 06:00 ~ 22:00
- 대성전 개방 : 월~금 10:00 미사 후 ~ 16:00
주 일 13:00 ~ 15:00
(※토요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미개방)
- 지하성지 개방 : 매일 09:00 ~ 19:00

◎ 명동대성당 미사 (5월 1일부터 적용)

요일	장소	미사시간
월요일	대성전	7:00, 10:00, 18:00
화~금		7:00, 10:00, 18:00, 19:00
토요일		7:00, 10:00 18:00, 19:00(늘푸른청년)
일요일	대성전	7:00, 9:00(영어), 10:00, 11:00 12:00(교중) 16:00, 17:00, 18:00, 19:00(청년)
	소성당	10:00(아미쿠스 주일학교)

- ※토요일 오후 6시·7시 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 ※일요일 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성전 입당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별도로 적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 상설 고해성사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화~금	11: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1:00 ~ 19:00	
주 일	10:00 ~ 19:00	

※월요일 고해성사(13:00~17:00)는 '성직자·수도자'만을 위한 고해성사입니다. 일반 신자는 상기 표에 안내된 요일·시간에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언어 : 이탈리아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요일	고해시간	고해장소
금요일	16:00 ~ 18:00	상설고해소
토요일	15:00 ~ 17:00	
주 일	08:30 ~ 08:50	대성전 고해소

◎ 본당 사무실 업무시간

요일	근무시간	비 고
화~금	09:00~19:00	평일(화~금)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사무실 폐문
일요일	07:00~20:00	

※5월 22일부터 일요일은 07:00~21:00까지 근무

◎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주일 오후 4시 미사에 봉사하는 로고스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20~30대 가톨릭 신자
- 문의 : 카톡ID 친구추가 ☞ LogosChoir
네이버 검색 ☞ 로고스합창단

◎ 명동 청년성서모임 신입 봉사자 모집

- 모집대상 : 청년성서모임 창세기 연수 이상을 수료한 만 33세 이하 청년 (1989년생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카페(cafe.naver.com/ourbible) 공지글 내 신청서 작성 (※공지글 필독 요망)
- 접수마감 : 5월 8일(주일)까지
- 지원문의 : 이메일(mdsd_bible@naver.com) 문의

◎ 명동대성당 세라핌합창단 2022년 단원 추가 모집

- 활동 : 토요일 오후 6시 주일미사, 서울대교구 행사 미사, 사제 및 교우 장례미사 등
- 자격 : 교우로서 남자(만 65세 이하), 여자(만 60세 이하)
- 오디션 일시 : 5월 13일(금) 오후 6시 또는 5월 14일(토) 오후 4시 중 자유선택
-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금요일)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토요일)
- 준비 : 자유곡(※악보 2부 지참) 및 시창
- 모집 : 알토, 테너 - 각 파트 약간 명
- 참고 : 위의 일시 외에도 오디션이 가능하므로 아래 문의처로 전화 문의바랍니다.
- 문의 : 단 장 김익경 (스테파노) ☎ 010-3007-4518
부단장 최원영 (글 라 라) ☎ 010-9996-3108

◎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 활동 : 주일 오전 11시 미사, 매월 두 번째 주일 영세식 성가 봉사 등
- 대상 : 성음악을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20세~만 53세 이하 가톨릭 신자 및 예비신자 여성
- 오디션 일시 : 5월 29일(주일) 낮 12시 또는 6월 26일(주일) 오후 1시
-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 오디션 준비 :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악보 2부 지참) 및 시창
- 문의 : ☎ 010-8788-4781 (문자로 연락 요망!)

◎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조기 실시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은 청소년 주일로서 청소년을 위한 2차 헌금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월 마지막 주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인 관계로 홍보 주일과 겹치게 됩니다. 이에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을 부활제 5주일인 다음 주 5월 15일로 앞당겨 실시하오니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은 서울대교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신앙과 인성교육의 기본적 자원인 교리교재 연구 및 보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 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 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성모 성월 기도회 》

성모 성월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달입니다. 묵주 기도와 평일 미사 참례는 물론, 성모동산에서 진행되는 기도회에 함께 하시어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우천 시 기도회 취소)

· 일시 : 5월 9일, 16일, 23일, 30일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미사 후

◎ 성모 성월 꽃 봉헌

과거 서양의 교우 가정에서는 5월 성모 성월이 되면 성모님을 위한 제대를 꾸미고 저마다 집에서 가꾸는 꽃들 중 가장 좋은 꽃으로 그 제대를 꾸미곤 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 그 분이 누리신 기쁨과 영광을 떠올리고 묵상하던 전통을 기리며 본당 사무실에서는 5월 한 달 제대와 성모님을 위한 꽃 봉헌금을 접수합니다.

※꽃 봉헌금도 기부금 처리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명동대성당 소속 신학생 & 예비 신학생

서울대교구 대신학교(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수학 중인 본당 소속 신학생은 총 4명이고, 본당 예비 신학생은 총 4명입니다. 본당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이 사제의 길을 잘 준비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구 분	성 명 (세례명)	
신학생	제대 후 복학대기	성일곤 (사도요한)
	군복무 중	장현희 (미 카 엘)
	신학과 2학년	윤성원 (미 카 엘)
	신학과 1학년	장원희 (율리아노)
예비신학생	일반	임서윤 (가브리엘)
	고등학교 2학년	권동우 (바실리오)
	중학교 2학년	장요셉 (다 니 엘)
	중학교 1학년	조예준 (미 카 엘)

◎ 첫 고 해

4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간 첫고해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고해성사 후 세례식 사진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일시/장소 : 5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주일 밤 9시 미사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주일 밤 9시 미사가 5월 22일(주일)부터 재개됩니다.

《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폐막 》

교황님께서 「사랑의 기쁨」 문헌 반포 5주년 기념으로 마련하셨던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가 2021년 3월 19일 시작되어 ‘제10차 세계가정대회 (2022년 6월 22일~26일)’에 맞춰 폐막합니다. ‘사랑의 기쁨 가정의 해’ 폐막에 따른 기도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청하신 교구장님의 뜻에 따라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아래 ‘가정을 위한 기도’를 모든 가정 공동체의 성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지향으로 매 미사 후 봉헌합니다.

【 기정을 위한 기도 】

하느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당신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고
인내와 친절로써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게 하소서.

또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작은 교회로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22년 4월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인준)

* 세계가정대회 폐막 미사

- 일시 : 6월 26일(주일) 낮 12시 교중미사
- 주례 : 정순택 베드로 교구장님

◎ 성소 주일 2차 헌금

부활 제 4 주일이자 「성소 주일」인 오늘은 성소 계발과 성소자 육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4/25-5/1).....30,944,000
 - 부활 제 3 주일 헌금.....26,250,000
 - 감사헌금 (4/25-5/1).....2,947,000
- 김 글라라 / 김 발렌티노 / 도 로사
박 막달레나 / 박 아델라 / 박 클라우디아
백 안젤로 / 심 알베르도 / 안 미카엘라
연 안젤라 / 오 젤푸르다 / 이 리베라도
이 미카엘라 / 이 에스텔 / 이 쥘마
임 사무엘 / 장 세실리아 / 전 아녜스
조 마리아막달레나 / 한 스틸라 / 익명(1)